

박상현의 '맛있는 이야기'



'미식의 시대' 열어 줄 대통령을 기대하며

음식을 먹는 인간 행위의 발전 단계는 '약식의 시대-폭식의 시대-미식의 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은 약식의 시대였다. 모든 문명의 우선적인 과제는 배고픔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다.

기실 우리나라도 이 시기를 벗어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꿀꿀이죽'으로 대표되는 한국전쟁 당시나 직후가 그랬고, 60년대 말까지 지속되었던 '보릿고개' 또한 마찬가지였다.

사정이 좀 나아져 국가적 차원에서 식량의 절대량 부족이 해소되면 폭식의 시대로 접어들는다. 이때가 되면 다양한 현상이 벌어진다.

느나가 계급과 계층을 나누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대량생산 대량소비가 정착되면서 식품산업과 외식산업이 급속히 성장한다. 바야흐로 먹거리의 주도권이 국가에서 자본으로 넘어간다.

폭식의 시대가 고도화 되면 사회 내부에서 분화가 일어난다. 음식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부류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미식의 시대에 음식은 생존과 욕망의 수단을 넘어 개인의 정체성과 이데올로기를

상징하는 수단으로 그 역할이 확장된다. 19세기 독일의 과학자 칼 포크트와 철학자 루트비히 포이어바흐는 이미 150여 년 전에 이를 예견했다.

미식의 시대는 이처럼 사회 전체의 변화가 아닌 개개인의 각성으로부터 출발한다. 공간이 삶의 질과 형태를 규정하듯 먹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인식이 보편화 된다.

미식의 시대는 이처럼 사회 전체의 변화가 아닌 개개인의 각성으로부터 출발한다. 공간이 삶의 질과 형태를 규정하듯 먹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인식이 보편화 된다.

따라서 미식의 시대에 개인은 수동적인 소비자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소비자로 바뀐다. 미식을 고급스럽고 값비싼 음식을 먹는 행위로 단순화시키는 것은 근대적인 관점이다.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현대적 관점에서 미식의 의미다. 그래서 미식을 추구하는 개인은 자신이 먹는 음식의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시안이 있다.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의 생산·가공·유통의 일련의 과정은 법률과 정책의 통제를 받는다.

권리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요구하고 행동함으로써 쟁취하는 것이다. 결국 먹는 문제 역시 정치의 문제로 귀결된다.

(맛칼럼니스트)

社說

'암흑의 일주일'...가짜 뉴스에 속지 말고

대통령 선거 6일 전인 어제부터 시행되는 여론조사는 결과 발표가 금지됨에 따라 이제 어느 후보가 앞서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문제는 허위 여론조사 등 가짜 뉴스를 통해서 막판 지지율이 요동칠 수 있다는 점과 잘못된 정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널리 퍼짐으로써 유권자들에게 혼선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오늘·내일 놀러가더라도 사전투표 꼭 하고

제19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5·9 대선은 선거절차면 온갖 답글만 말들이 난무하지만 어쩌면 건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선 어느 후보도 호남인들의 귀가 번쩍 트일 만한 공약마저 내놓질 않는다.

사라들은 이번 조기 대선인 '춧불 혁명'의 성과라고도 말한다. 그러나 혁명(revolution)은 리볼버(revolver) 권총의 탄창처럼 들고 도는 것. 다만 부와 엘리트의 교체가 일어날 뿐이다.

無等鼓

지난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공연된 광주시립발레단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다양한 안무와 세련된 무대 연출로 박수갈채를 받았다.

'언더스터디'

연습실 중앙에서 주 역할들이 연기하는 동안 한쪽에서 또 한 명의 줄리엣이 똑같은 동작을 연습하는 모습이 보였다. 두 사람이 2인무를 출 때 그녀는 홀로 로미오를 상상하며 춤을 쳤다.

마구잡이로 유포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에는 안철수 후보의 딸 설희 씨가 우리말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의혹이 다른 후보 측에서 제기된 바 있다.

따라서 국민도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미심쩍은 정보를 퍼 날라셔도 안 된다.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커피 원장

핍박받을지 모른다고?



조경완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나만 그렇게 느꼈을까? 대한민국의 수도에 불 일 있어 KTX를 타면 호남선 승객들은 용산역에 내린다.

국민반응일 수 있다. 그러나 나 같은 불만들이 접수됐는지 작년 12월부터 코레일은 서울역에서도 호남선 전라선 상하행 각 12편씩을 끼워 넣었다.

우리처럼 조밀한 국토에다 교통 통신이 고도화된 국가에서 특정 지역 거주자 또는 출신자들이 손해나 차별을 받고 산다는 건 못 참을 일이다.

건 호남이 GRDP, 고위관료와 법관, 검경 수뇌, 군 장성, 대기업과 공기업 임원, 심지어 명문대 입학생 수에서까지 현저히 열위에 있다는 사실이다.

수반을 선거로 뽑는 국가에서 당선자가 각 지역에서의 득표율을 정책에 반영한다면 치사한 노릇이다. 그러나 어쩔 것인가. 지난 경험으로 호남은 더럽게도 차별 받았다.

호남 사람이 그나마 기를 펴고 산 건 DJ정부 중반 이후 잠깐이다. 초반엔 IMF사태에서 헤어나느라 정진 없었다. 더욱이 영호남 화합을 한다며 영남 총리를 앉히고 배타적 호남 특혜에는 극도로 조심했던 DJ다.

바람에 지는 풀잎으로 오월을 노래하지 말아라

의 힘으로 연인원 1700만 명이 4개월 동안 집회를 해서 마침내 박근혜를 몰아내고 봄을 맞았다. 그리고 다시 오월,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대선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오월을 맞이하고 있다.

5월이면 광주는 자신도 채 알지 못한 상처를 앉고서 가까이 우리 사회의 아픔과 시름을 품어왔다. 재작년에는 세월호 아이들과 가족들을, 작년에는 백남기 농민과 가족들을 광주는 그 너른 품으로 안고서 함께 울었다.

국가공권력에 의해 살해된 백남기 농민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요원하기만 하다. 3년이 지났지만 세월호가 왜 침몰했고 우리들의 꽃다운 아이들이 죽어갈 때 왜 구하지 않았는지 묻는 가족들과 국민의 피맺힌 물음에 답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그리고 마침내 유신 공주, 독재자는 파면되고 감옥에 갔다. 촛불혁명으로, 국민

에 흘렸다. 거기까지였다. '광주의 기적'으로 당선됐다는 노무현 대통령은 광주에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첫 삽을 뜨게 한 것 외에 호남 사람 속 뒤집는 말만만하다.

백보를 양보하여, 박정희 정권 시절 대미 대일 외교와 수출이 국가의 생명줄일 때 정부 측의 개발이 우선이었다고 인정하자.

백보를 양보하여, 박정희 정권 시절 대미 대일 외교와 수출이 국가의 생명줄일 때 정부 측의 개발이 우선이었다고 인정하자. 포항과 울산 구미에 퍼부는 국부가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하자.

바람에 지는 풀잎으로 오월을 노래하지 말아라

나라 경찰들이 우리네 할머니들을 짐승처럼 끌고나고 그것을 보며 비탄한 웃음을 보이는 미군을 보면서 느끼는 비참함은 37년 전 광주와 오늘이 무엇이 달라졌는지 가슴을 답답하게 짓누른다.

5월이면 광주는 자신도 채 알지 못한 상처를 앉고서 가까이 우리 사회의 아픔과 시름을 품어왔다. 재작년에는 세월호 아이들과 가족들을, 작년에는 백남기 농민과 가족들을 광주는 그 너른 품으로 안고서 함께 울었다.

이제 곧 누군가가 대통령이 될 것이지만 누가 되든(물론 다들 본인이 촛불 후 보임을 자처하고 있기는 하다) 1700만 명이 바라던 대한민국을 그려갈 수 있을까? 우리는 아직은 할 수 없다.

바람에 지는 풀잎으로 오월을 노래하지 말아라

권에, 박근혜가 몰라가고, 정권이 바뀌면 저절로 달라지리라 믿을 수는 없는 일이다. 아마도 대선이 끝나면 다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이 이루어지고 개인 운운하는 정치놀음에 밥그릇 싸움에 촛불의 명령 따위는 이내 묻혀버리고 또 외면당하게 되리라.

'바람에 지는 풀잎으로 오월을 노래하지 말아라' 오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시인 김남주의 시구나. 시인은 오월 광주의 참혹하고 치열했던 참상을 시로 옮기면서 바람과 풀잎은 오월과 어울리지 않는다며 서정적으로 오월을 노래하지 말라 했다.

5월 9일 제대로 투표하고 아직은 촛불을 끄지 말아야 할 이유다.

*다른 세상 새로운 전남 건설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박근혜정권 퇴진 전남 운동본부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오용운 다른 세상 새로운 전남 건설운동본부 준비위원회 집행위원장

지난가를 겨울을 거쳐 봄까지 우리 국민은 작은 촛불 하나를 들고 거리에 섰다. 말 그대로 남녀노소가 거리를 메웠다. 평소 같았으면 차 막힌다 투정했을 그 거리, 시위 행렬에 끼거나 한 사람 더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추위와 눈비 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말 저녁이면 거리에 서서 같은 마음으로 촛불을 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유신 공주, 독재자는 파면되고 감옥에 갔다. 촛불혁명으로, 국민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for subscription and advertising.